

부활절 세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3RD SUNDAY OF EASTER

주후 2024년 4월 14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66 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통일 48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5 번 시편 27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사(Isaiah) 6:1-9, 눅(Luke) 20:36-48	조한나 집사
찬 양 Anthem	“여겨주심으로”	찬양대
설 교 Sermon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Opened Their Minds to Understand the Scriptures)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449 장 “예수 따라가며” (통일 37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거짓 앞에서 침묵했고,

죄의 유혹 앞에서 여지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 받았던

에베소 교회와 비슷했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한 죄성과 그릇된 욕망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 68, 계 24, 계 3:1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눅 20:44-45)  
“He said to them, “This is what I told you while I was still with you: Everything must be fulfilled that is written about me in the Law of Moses, the Prophets and the Psalms.” Then he opened their minds so they could understand the Scriptures.” (Luke 20:44-4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14 (주일)	4/15 (월)	4/16 (화)	4/17 (수)	4/18 (목)	4/19 (금)	4/20 (토)
	레19	레20	레21	레22	레23	레24	레25
본문	시23,24	시25	시26,27	시28,29	시30	시31	시32
	전2	전3	전4	전5	전6	전7	전8
	딤펵4	딤펵5	딤펵6	딤펵1	딤펵2	딤펵3	딤펵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4/17수 오후730)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계3:1-6)
토요 새벽기도회 (4/20토 오전630)	“여호와와의 모든 종들아” (시134:1-3)

지난 주일(4/7)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 20:19-31, 행 4:32-35)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큰 두려움 가운데,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신 것처럼... 또한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골짜기 사방에 흩어졌던 마른 뼈들 가운데 (각각)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하고 떨던 제자들을 향해, 숨 (생기)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디두모라고 불렀던 도마입니다(요20:24). 그래서 옳는지?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숨결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것이 그에게는 (별다른)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 상처를 보고, 자신의 손으로 그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20:27)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20:29)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도마는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이다”(요20:28)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즉,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해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